

# 한국어 주제문의 일치 현상 -HPSG적 접근-\*

이 남 근  
(조선대학교)

Lee, Namgeun. 1996. Agreement Phenomena in Korean Topic Sentence: An HPSG Approach. *Linguistics* 4, 193-213.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escribe agreement phenomena in Korean topic sentences with respect to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based on information and constraints. In chapter 2, topic and focus sentences in Korean discourses are distinguished and defined. In only Korean topic sentences does agreement between a third-person-singular morpheme and a second-person-singular morpheme occur and this agreement is described. In chapter 3, some concepts and mechanisms related to the agreements for HPSG established in Pollard and Sag (1994) are introduced. In chapter 4, based on the background of previous chapters, agreements in Korean topic sentences are analyzed, and it is revealed how the factors relating to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interact on Korean agreement structures in topic sentences. The final chapter contains conclusions. (Chosun University)

##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주제문의 일치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 의미적이고 화용적 요인이 문법 구조에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어 주제문 일치는 순수한 통사적 입장에서 기술하기보다는 정보 기반 이론을 바탕으로 한 HPSG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담화 기능상에서 한국어의 주제문과 초점문을 구별하고 주제문만이 3인칭 형태소와 2인칭 형태소가 일치하는 현상이 있음을 논의한다. 3장은 HPSG II<sup>1</sup>라고 부르는 Pollard & Sag(1994)를 중심으로 한 일치와 관계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한다. 4장은 이를 바

\*이 논문은 1995년도 조선대학교 교수 해외 파견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up>1</sup>HPSG는 이론의 발전 단계로 보아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Pollard & Sag (1987))에 전개된 내용을 HPSG I이라고 부르고, 이 이론에 수정을 가한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Pollard & Sag (1994))의 내용을 HPSG II라 부른다. 이후 수정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편의상 HPSG III라고 한다.

탕으로 한국어 주제문 일치 현상을 분석하고 결론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 2. 한국어의 주제문과 초점문

한국어 문장에서는 너, 당신, 귀하 등이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것 이외에도 은/는의 토씨가 붙어서 3인칭 형태소가 2인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1) a. 선생님은 어디 가세요?
- b. 철수는 저리 가거라.
- c. 영희는 참 예쁘구나.

(1)에서 보듯이 3인칭 형태소가 2인칭으로 쓰이는 것은 담화 상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한국어가 담화 의존적인 언어<sup>2</sup>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1)의 문장에서 선생님, 철수, 영희가 3인칭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토씨 은/는이 붙어서 2인칭이라는 사실은 다음 (2)와 (3)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 (2) a.\*철수는 그의 포부가 크구나.<sup>3</sup>
- b.\*철수는 그의 집으로 가거라.
- c.\*철수는 그의 엄마가 좋으니?
- (3) a.\*철수는 그의 포부가 크구나.
- b. 철수는 그의 집으로 가거라.
- c. 철수는 그의 엄마가 좋으니?

(2)의 예문에서 담화기능상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철수가 청자인 경우 즉, 2인칭 철수로 쓰인 경우 그와 동일 지시 대상이면 비문이다. 그러나 (3b, c)는 철수와 그가 동일 지시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철수와 3인칭 대명사인 그가 동일 지시 할 수 없다는 것은 철수가 3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4)와 (5)의 문장을 보자.

<sup>2</sup>장석진(1993, 1994)을 참조하라.

<sup>3</sup>이 문장은 감탄문의 일종으로 담화상 2인칭 청자에게 말하는 경우와 화자 스스로 제삼의 상태를 감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3인칭 철수는 3인칭 그와 2인칭 철수는 너와 동일 지시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지표를 갖는 경우는 비문이다.

- (4) a. 철수<sub>i</sub>는 너<sub>i</sub>의 포부가 크구나.  
 b. 철수<sub>i</sub>는 너<sub>i</sub>의 집으로 가거라.  
 c. 철수<sub>i</sub>는 너<sub>i</sub>의 엄마가 좋으니?  
 (5) a.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포부가 크구나.  
 b.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집으로 가거라.  
 c.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엄마가 좋으니?

(4)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론적 3인칭 철수와 2인칭 너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동일하여 적격문인 반면에 (5a, b)의 경우에는 지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문이다. 그것은 (4)의 경우, 철수의 형태론적 의미 정보는 3인칭이지만 문장 상에서 너와 일치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철수가 2인칭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평서문과는 달리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등은 담화 기능상에서 청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문장이므로 한국어에서는 철수가 2인칭으로 쓸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담화 기능상일지라도 은/는의 토씨가 붙는 경우는 철수가 일반적으로 2인칭으로 지칭되는 반면, 다른 토씨가 붙으면 비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5c)의 경우에는 철수 다음에 토씨 는이 붙어 있으므로 철수와 너가 (4c)처럼 동일 지시되어야만 적격문이 되는데 동일 지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격문인 것은, (4c)와 (5c)는 토씨 는과 관계없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4)와는 달리 토씨 가가 붙는 (6)의 문장들을 보자.

- (6) a. \*철수<sub>i</sub>가 너<sub>i</sub>의 포부가 크구나.  
 b. ?철수<sub>i</sub>가 너<sub>i</sub>의 집으로 가거라.  
 c. \*철수<sub>i</sub>가 너<sub>i</sub>의 엄마가 좋으니?

(4)와 (6)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4)의 문장은 은/는이 붙는 주제문이라 하고 토씨 가가 붙는 (6)의 문장은 초점 정보를 전달하는 초점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제문인 경우에는 3인칭 형태소라 할지라도 2인칭과 일치 관계가 성립하나 초점 정보를 주는 가가 있는 경우는 비문이 된다.

본 고에서는 주제문과 초점문을 구별하여 주제문에 나타나는 일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주제라 함은 보통 “XP+는/은”의 구조를 가지고서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말해 주는 성분으로서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무표적인 특징이다. 또한 주제문은 문의 필수 성분인 보충어구 특히 주어 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석진(1994)에 따르면 초점과 주제는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와 관심을 통해 연계(speaker connection)를 맺는 담화

기능으로서 정보의 신/구, 미지/기지, 화·청자의 의도와 관심의 중심 등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되지 않는 신정보나 미지의 사실 등은 초점의 대상이 되고 공유되는 구정보나 기지의 사실 등은 전제(presupposition)라 부른다. 이 전제 중 문두에 오는 성분을 주제라고 했다. 따라서, 초점과 주제는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갖는다. 다음 예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과 주제를 구별해 보자.

- (7) a. 철수는 합격했어요.  
b. 철수가 합격했어요.

(7a)는 합격했다는 것이 강세의 중심이 되고 새 정보가 되어서 합격했다는 것이 초점이 된다. 반면에 철수는 구정보로 전제된 것이므로 주제라는 것이다. (7b)에서는 전제로서 어떤 사람이 합격했다는 구정보에 철수는 신정보로서 강세의 중심어가 되어 초점이 된다. 다시 부언해 보면 토씨는은 전제 정보를 갖고 가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는 초점문에서 나타난다. 는이 취하는 문두의 구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고 가가 취하는 문두의 구는 신정보를 주는 초점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토씨 자체가 주제어나 초점어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장석진(1994)에서처럼 정보의 신/구에 따른 초점과 전제 정보로서 초점문과 주제문을 구별하기로 한다.

다시 환언하여 보면, (1)의 문장들이 적격문인 것은 주제어가 2인칭으로 전제된 주제문이기 때문이고 (4)의 문장에서 3인칭 형태소와 2인칭 형태소가 일치하는 것도 주제문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5a, b)에서는 주제문임에도 비문인 것은 3인칭 형태소와 2인칭 형태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4c)와 (5c)를 보면 (4c)는 철수와 너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5c)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적격문이다. 다시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8) a.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엄마를 좋아하니?  
b.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엄마를 좋아하니?

(8a)의 문장은 화자가 청자인 철수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이고, (6b)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게 제삼자인 철수의 상태를 질문한 것이다. (8a)의 철수는 화·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제된 정보이고, (6b)의 철수는 신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에서 두 문장 모두 토씨 는이 쓰였지만 (8a)의

는은 주제어를 나타내는 논이므로  $철수$ 와  $너$ 가 일치하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고 (8a)의 는은 주제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 와  $너$ 가 동일 지시가 안 되는 문장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8b)는 논이 토씨가 초점을 전달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b)는 초점문인 다음 (9)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본다.

(9)  $철수_i$ 가  $너_j$ 의 엄마를 좋아하니?

결국 초점문에서는 초점어와 2인칭 대명사간에 동일 지시에 의한 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반면, 주제문에서는 주제어와 2인칭 대명사간에 일치가 가능하다. 또 다른 예로 (6b)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0) a.  $철수_i$ 가  $너_j$ 의 집으로 가거라.

b. \* $철수_i$ 가  $너_j$ 의 집으로 가거라.

(10a)는 몇몇 사람이 있는 경우 즉 화자에 의해 이미 전제된 사람에게 명령하는 문장으로, 약간 어색하기는 하나 적격문인 것은 거의 통사적 특성이 초점 정보를 주로 갖고 있지만 결국 (10a)의 경우 주제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철수$ 와  $너$ 가 동일 지시가 된다. 그러나 (10b)는 동일 지시도 아닌 초점문으로 보이므로 적격문이어야 함에도 비문인 것은 가거라의 명령 수행자가  $철수$ 가 되므로  $너$ 와 불일치하는 문장을 쓸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주제문은 3인칭 형태소와 2인칭 형태소가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명사구인  $철수$ 가 사전에서 3인칭 요소와 2인칭 요소를 갖고 있는데, 2인칭 경우로 실현되는 것은 주제문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잘 기술해 내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다만 본고는 주제문의  $철수$ 와  $너$ 가 일치하는 문제에 맞추어 한국어 주제문의 일치 현상을 정보 기반적이고 제약 기반적인 HPSG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 3. 핵어 중심 구구조문법의 이론과 일치

HPSG는 언어 표현인 기호(sign)을 음운, 통사, 의미, 담화, 구구조의 정보를 갖는 구조화된 복합체로 간주한다. 즉, 모든 언어적 대상물은 자질 구조로 표현한다. 자질 구조는 언어 표현 또는 범주의 정보를 속성-속성

가행렬(attribute-value matrix: 이후 AVM라 칭함.)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문법은 유형의 위계(sort hierarchy)와 원리(principles)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문의 일치 현상을 HPSG로 기술하기 앞서 일치 현상과 관련있는 몇가지 개념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HPSG 일치 현상의 접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 지표(referential index)와 구조 공유(structure sharing), 그리고 통합(unification)의 개념이다.

이제 INDEX가 HPSG의 일치 이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음 문장의 주어-동사 일치 현상을 살펴보자.

(11) The man walks.

일치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파생적 접근법(derivational approach)으로서 일치 통제자라고 불리는 명사에서 일치 자질 다발을 해당되는 일치 목표로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방향성 절차가 있는 방법이다. 둘째는, 제약 기반 접근법(constraint-based approach)으로서 일치 관계에 참여하는 2가지 요소는 하나의 언어 대상물에 대하여 부분 정보만을 명시할 뿐이다. 즉 정보 기반 접근 방식에서 주어-동사의 일치와 같은 일치 현상은 동일한 대상 즉, 술어 동사 *walks*와 주어 명사 *the man*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 표현들이 지칭하는 통사, 의미적인 결과로 간주한다. 명사 표현 *man*은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킨다. 비록 동사 *walks*가 사물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너 또한 우리들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동사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하나의 3인칭 단수 명사구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명사 표현 *the man*과 동사 표현 *walks*는 명사구 *the man*이 가리키는 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 결합될 수 있다.

주어-동사 일치와 같은 일치 현상은 단순히 통사적인 현상보다는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적 현상들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12) a.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 getting cold.  
 b.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is getting cold.  
 c.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is getting angry.  
 d. \*The hash browns at table nine are getting angry.

위의 예문의 주어는 *hash browns*로 형태가 동일하나, 예문 (12a,b)에서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are*와 일치하나 단수 동사 *is*는 비문이 된다. 반면에 예문 (12c,d)에서는 달라진다. 그 이유는 '*hash browns* 음식을 시킨 손님'을 의미하여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단수 동사와는 일치되나 복수동사와는 일치되지 않아서 비문이 된다. 이는 일치 현상이 순수한 통사적인 현상만은 아님을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치 현상을 전적으로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

- (13) a. The faculty is voting itself a raise.  
 b. \*The faculty is voting themselves a raise.  
 c. The faculty are voting themselves a raise.  
 d. \*The faculty are voting itself a raise.

위의 예문의 주어 *the faculty*는 형태상으로 단수형이지만 의미적으로 단수 혹은 복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3a,b)처럼 주어가 단수로 사용되면 동사가 단수로 선택되고 재귀대명사도 단수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예문 (13c,d)처럼 주어 명사가 복수로 사용되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선택되어 주어-동사 일치가 이루어진다. 또 재귀대명사도 복수형인 *themselves*가 결속 이론에 의하여 주어과 공지표되도록 한다. 이는 일치 이론이 의미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와 의미론을 종합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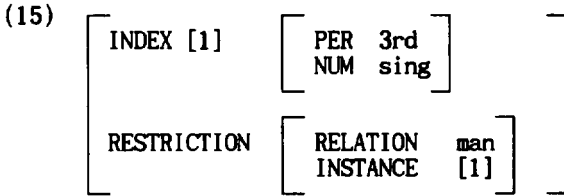
일치 현상의 설명에 화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을 아래의 예문이 보여준다.

- (14) That dog is so stupid, every time I see it I want to kick it. He's a damed good hunter though.

위의 2개의 문장은 담화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어 명사 *that dog*이 남성 대명사인 *He*와 중성 대명사인 *it*로 지칭되었다. 이는 영어의 어떤 화용 원리의 적용의 결과인 것이다. 즉 대명사 일치의 변환이 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또는 개에 대한 개체화의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이론이 될 것이다. 이 이론이 제약 기반 일치 이론인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이론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법에 통합하기 위하여 HPSG에서는 명사 대상물의 위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유형 *nominal-object*는 *INDEX*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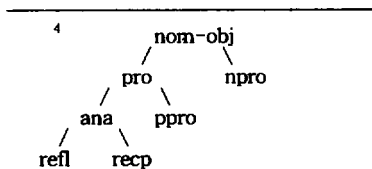
DRESTRICTION을 자질로 취하는 자질 구조를 갖는다. INDEX는 또 일치 자질인 PERSON, NUMBER, 그리고 GENDER을 취하는 자질 구조를 갖는다. INDEX라 부르는 의미 속성을 도입하고 인칭, 수 그리고 성과 같은 자질들을 INDEX의 값으로 취한다. 다음을 보자.



자질구조 (15)는 *The man walks* 에서 *man*의 부분적인 의미 표시인 INDEX를 나타낸다. 이것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제한된 매개변수(a restricted parameter)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서 INDEX가 ‘인간’이라는 1항 관계로 제한되는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속성 INDEX가 다시 “third person singular”라는 정보 개념을 표시하는 자질 구조를 값으로 취한다는 점이다. 이는 속성 INDEX가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이러한 발상을 다른 이론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성질을 가진 INDEX를 도입함으로써 일치에 대한 파생접근을 채택하는 변형문법과 같은 다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HPSG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통합의 장치에 의해서 어떻게 통사, 의미, 그리고 화용적인 요인들이 각각 그 내부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자기의 영역을 초월하여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지 동사 *walks*의 자질 구조를 통해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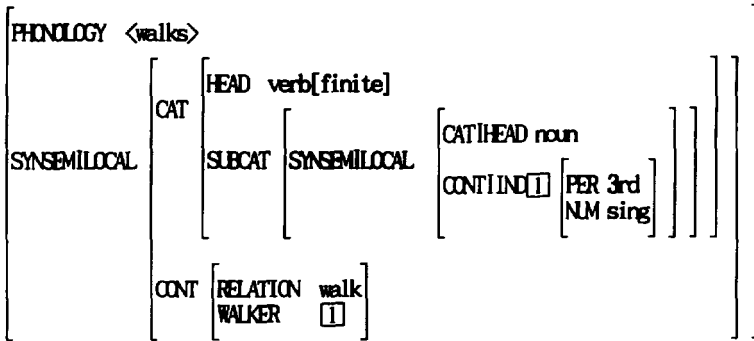
(16)의 SYNSEM|LOCAL 자질 구조는 두 가지 범주상의 정보(CAT)와 한 가지의 의미상의 정보(CONTENT)를 나타낸다. 이는 첫째, *walks*가 한정형의 동사로서 의미 내용이 INDEX이며 그것은 다시 “third person singular”를 값으로 갖는 명사구를 하위범주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walks*의 의미 내용은 하나의 논항(또는 의미역 또는 주제역) “걷는 자”가 참여하는 “걷고 있는” 관계임을 말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걷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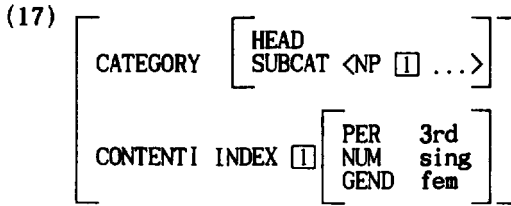
가 반드시 하위범주화 자질로 규정되는 동사의 주어 보어에 의해서 지시되는 사람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정보는 번호표 [1]이 두 번 나타나게 함으로써 표시되며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16)에서 CONT|WALKER의 값이 SYNSEM|LOCAL|INDEX의 값과 통합(또는 구조 공유)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번호표[1]이 (15)의 *man*에 대한 속성 INDEX의 값에도 놓여 있다. 이는 *The man walks*와 같이 본동사가 *walks*인 문장의 주어로 *man*이 오면, *the man*의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그 사람은 사실은 (16)에서 표시된 “걷는 자”임을 의미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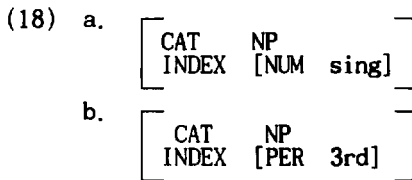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의미적인 INDEX 때문에 일치에 대한 HPSG의 정보 기반 분석은 엄밀히 단조적인, 비변형적인 방식으로 일치 현상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영어의 주어-동사 일치 관계는 주어 명사와 그것의 술부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명사의 두 가지 INDEX들 사이에 동일성이 보장되어지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설명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 표현의 일치 자질들에 관한 정보가 (예를 들어, 주어 명사 *man*) 또 다른 표현 (예를 들어, 술부 동사 *walks*)에 대한 정보와 양립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곧 일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의 전부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는 어떠한 파생적 작용(non-derivational process)도 포함될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점은 어떤 정보가 다른 언어 표현에 의해서 어떻게 공유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구조 공유(structure sharing)란 하나의 자질 구조 안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속성들이 동일한 자질 구조로 된 속성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한다. 앞 절에서 이미 그 실례를 살펴보았지만, 다음에서 간단한 구조 공유의 예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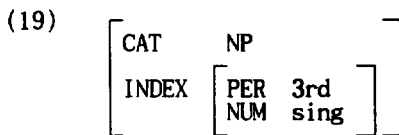


위의 (17)에서 SUBCAT 목록 NP는 번호표[1]이 하기 표시되어 있다. 또한 CONTIINDEX의 속성 값에도 동일한 번호표가 붙어 있다. 이는 SUBCAT NP의 INDEX와 CONTIINDEX의 속성 값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 우리는 양자가 구조 공유한다고 말한다. (17)의 구조 공유가 의미하는 것은 SUBCAT 자질이 하위범주화하는 NP가 반드시 3인칭 단수의 일치 정보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구조 공유는 하나의 자질 구조 안에 동일한 번호표를 여러 곳에 오게 함으로써 나타난다.

두 요소가 구조 공유를 이루면 두 요소는 통합되게 된다. 통합이란 글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뜻으로 구조 공유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정보의 대상을 나타내는 두 자질 구조를 합하여 제 3의 새로운 자질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때에 두 자질 구조가 통합이 가능하려면 상호 모순되는 정보를 갖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자질 구조들이 있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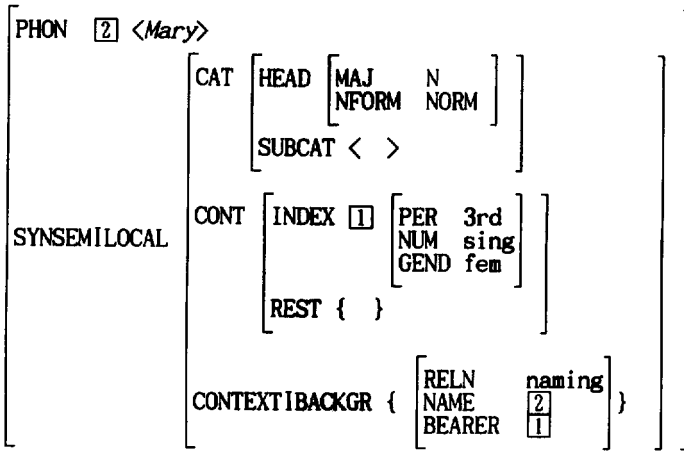
(18)에서 a와 b의 두 자질 구조는 서로 다르기는 하나 양립할 (compatible)수 있는 정보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또 다른 자질 구조 (19)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통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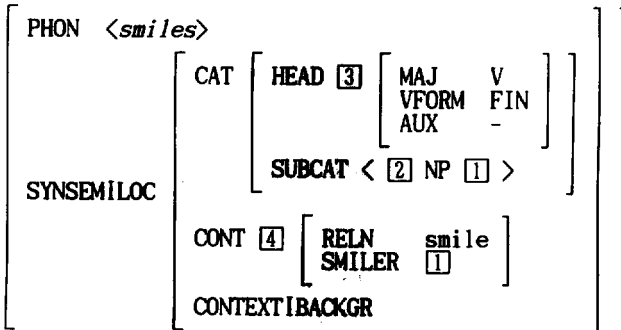
이제 구조 공유와 통합의 장치에 의해서 일치 문제가 HPSG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예문 (20)의 문장을 검토해보자. 아래에서 보여지는 자질 구조 (21a)는 *Mary*를, (21b)는 *smiles*를 나타내고 있다.

(20) *Mary smiles.*

(2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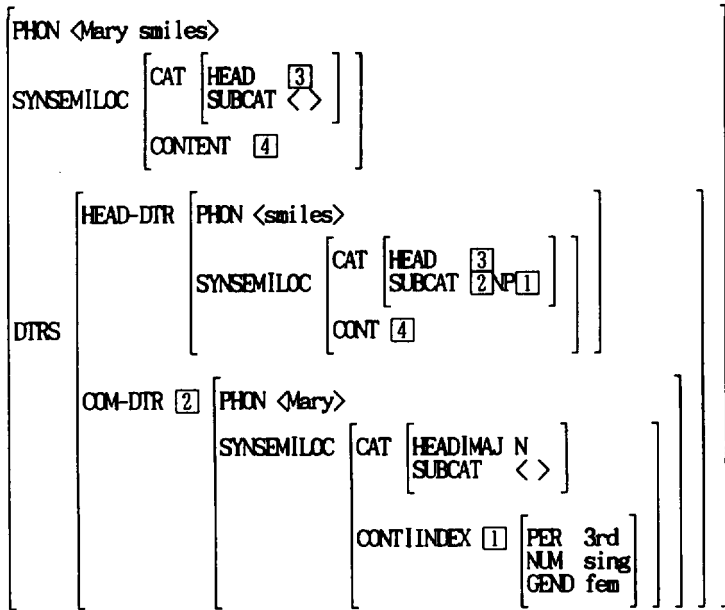
b.



AVM (21a)의 자질 구조에서 주어 *Mary*는 INDEX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속성 값으로 "3인칭 단수 여성"이라는 정보를 나타낸다. 한편으로 (21b)의 자질 구조에서 SUBCAT 속성 값에 하나의 NP가 들어 있고 이 NP에

는 하기 번호표 [1]이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그 명사 표현의 INDEX 값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smiles*의 의미 내용은 ‘웃는다.’는 관계에서 하나의 의미역 ‘웃는 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웃는 자’는 동사 *smiles*가 요구하는 보어 NP와 INDEX가 일치한다. 즉, 번호표[1]로서 구조 공유 관계를 나타낸다. (21b)에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INDEX의 속성 값은 [3인칭 단수 여성]의 정보를 나타내며 그것의 표시가 번호표 [1]이다. 이제 INDEX 속성 값이 구조 공유를 이룬 (21a)와 (21b)의 두 AVM은 통합될 수 있다. 다음 (22)은 통합된 *Mary smiles*의 자질 구조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 DTR는 daughters를 나타낸다.

(22)



(22)의 자질 구조에서는 DTRS 속성이 있으며, 이것은 통사 정보 중에서 구성성분 구조를 나타낸다. 그것의 속성 값은 국부 수행도(local tree) 유형의 자질 구조가 된다. COMP-DTR은 주어 보어를 나타내며, 그것은 의미적인 INDEX를 갖는다. HEAD-DTR은 핵 범주를 나타내며, 어휘 핵 *smiles*는 하위범주화 원리에 의해 NP보어 하나를 요구한다. 그런데 SUBCAT의 속성 값 NP는 하기 번호표 [1]을 갖고 있으며 이는 COMP-DTR의 INDEX 번호표와 구조 공유를 이룬다. 이러한 사실은

*smiles*의 주어 보어는 *Mary*가 갖고 있는 INDEX 속성 값과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Mary*는 *smiles*의 주어로 올 수 있으며, 번호표 [2]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핵 범주의 SUBCAT 속성 값을 채우면 구 범주의 SUBCAT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SUBCAT 목록은 영(zero)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HPSG는 구조 공유 또는 통합의 장치를 활용하여 한 언어 표현이 지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음운론적 요인, 통사적 요인, 의미적 요인 그리고 화용적 요인 사이에 교차하고 상호 작용하는 현상을 포착하려고 한다.

화용적인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한국어의 존칭의 일치 현상을 Pollard & Sag(1994)에 입각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3) a. Kim sacang-i o-ass-ta.  
 Kim President-NOM come-PAST-DECL  
 'President Kim has come.'  
 b. Kim sacang-nim-i o-si-ess-ta.  
 Kim President-HON-NOM come-HON-PAST-DECL  
 c. #Kim sacang-i o-si-ess-ta  
 Kim President-NOM come-HON-PAST-DECL  
 d. #Kim sacang-nim-i o-ass-ta  
 Kim President-HON-NOM come-PAST-DECL

HPSG의 CONTEXT 속성은 여러 종류의 화용적 일치 예를 들면 일본어와 한국어의 존칭 일치현상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어에서 주격 존칭 표지어인 *-nim*은 행사의 지시 대상이 존경을 받는 명사를 표시하는데 이용된다. 또 접사 *-si-*는 주어의 지시 대상자에게 존경이 주어질 때 상위문의 동사나 형용사에 나타난다. 보편적으로 존칭의 동사 형태소와 존칭의 주어 표지는 동시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시에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위의 예문 (23a,b)는 좋은 문장이나, 예문 (23c,d)는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서로 대립되는 정보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HPSG에서는 존칭의 명사 *Kim sacang-nim*과 존칭의 동사 *o-si-ess-ta*의 자질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해결한다. 자질구조 (24a)에서 *-nim*은 화자가 *-nim*이 결합된 명사구의 지시 대상자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것을 BACKGROUND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존칭을 의미하면 POLARITY의 값이 1이다. 반면에 *Kim sacang*의 POLARITY는 값이 0으로 존칭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질 구조 (24b)의 *-si-* 형태도 화자가 주어 대상자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정보를

소개한다.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면 POLARITY가 1이 되고, 존칭의 의미가 없는 *-o-ass-ta*의 POLARITY는 0이 된다.

(24) a.

CATEGORY	[ HEAD noun SUBJECT < > ]
CONTENT	[ INDEX 1 RESTRICTION { } ]
CONTEXT	[ C-INDICES [SPEAKER 2] BACKGROUND { [RELATION name NAMED 1 NAME Kim sacang] , [RELATION owe-honor] HONORER 2 HONORED 1 POLARITY 1 } ] ]

b.

CATEGORY	[ SUBCAT <NP [nom] 1 > ]
CONTENT	[ RELATION come COMER 1 ]
CONTEXT	[ C-INDICES [SPEAKER 2] BACKGROUND [RELATION owe-honor HONORER 2 HONORED 1 POLARITY 1 ] ] ]

예문의 설명은 간단하게 된다. 즉 예문 (23a)의 주어 대상자는 존칭의 극성값이 0이고 그에 따른 동사의 존칭의 극성값도 0이므로 일치가 이루어진다. 예문 (23b)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존칭에 대한 극성값이 1로서 일치하여 좋은 문장이 된다. 한편 예문 (23c)에서는 주어는 극성값이 0이지만 동사의 극성값은 1이 되어서 부적합한 문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23d)에서의 주어는 극성값이 1이나 동사의 극성값은 0이 되므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부적합한 문장이 된다.

이러한 화용적인 요인을 자질 구조의 CONTEXT에 받아들여 한국어의 주제문의 일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4. HPSG의 한국어 주제문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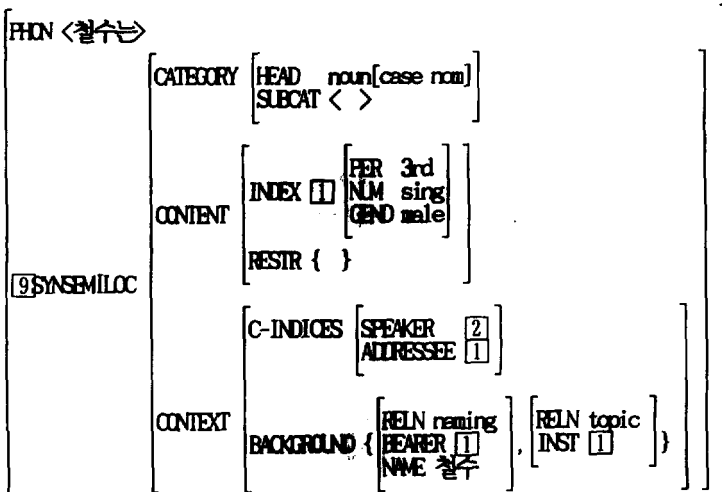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된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한국어 삼인칭 형태소가 주제어인 경우 이인칭 형태소와 일치하는 현상을 AVM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다시 보자.

- (25) a. 철수<sub>i</sub>는 너<sub>i</sub>의 엄마를 좋아하니?
- b. 철수<sub>i</sub>는 너<sub>j</sub>의 엄마를 좋아하니?
- c. 철수<sub>i</sub>가 너<sub>j</sub>의 집으로 가거라.

(25a)의 문장은 앞서 논의한 대로 주제문으로 일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고 (25b)는 통사적으로 주제문 같지만 사실은 초점문으로 보이는 문장이다. 그리고 (25c)는 초점문처럼 보이지만 담화상 주제문으로 간주한 경우다. (25)의 문장들을 HPSG의 범주에서 어떻게 기술해 내느냐가 이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25a)의 문장을 AVM으로 분석해 보자.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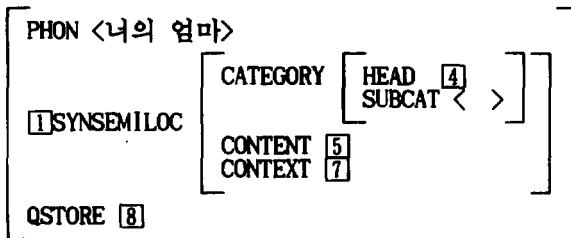


(26)은 형태론으로 3인칭이면서 담화상에서는 2인칭으로 쓰이는 (25a)와 같은 문장에서의 철수를 표현한 것이다. 이 AVM에서 철수<sub>i</sub>의 형태론적 의미정보는 INDEX의 값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번호표 [1]에 의해 표현된

것처럼 명백히 3인칭 단수 남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고, 이 문장의 실제 담화상에서는 첼수는이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내용은 CONTEXT의 값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즉 첼수는이 담화상에서 듣는 사람(ADDRESSEE)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이 지시 대상이 첼수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것이 전제 정보(BACKGROUND)의 하나로 제시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첼수가 이 문장의 주제(topic) 라는 점이 또 하나의 전제 정보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AVM은 형태론적으로 3인칭인 것이 주제로 쓰일 때, 담화상에서 2인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이때 SPEAKER의 값은 [2]이지만, 화자가 담화상의 어느 누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박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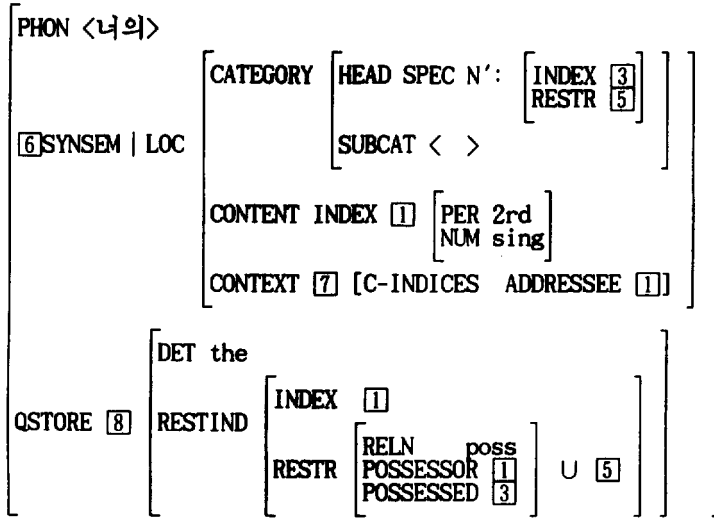
AVM (27a-c)는 위의 문장(25a)에서 너의 엄마를 각 교점별로 표현한 것으로 너의가 어떻게 첼수와 동일 지시가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공간 제약상 AVM을 분리해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AVM (27a)가 모교점(mother node)을 차지하고, AVM (27b)와 AVM (27c)는 각각 이 교점의 자매들로서 AVM (27b)는 지정어(specifier)로서 좌측에, 그리고 AVM (27c)는 핵어(head)로서 우측에 각각 위치한다. 첼수와 동일 지시되는 너의를 중심으로 이 AVM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너의는 HPSG이론에서 양화사로서 QSTORE의 값으로 그 의미값이 표현된다. AVM(27b)를 보면, 이것은 the 유형의 한정사(determiner)로서 인덱스 [1]로 지시되는 존재 대상에 대해서 소유 관계(poss)를 구성한다. 이 관계에서 첼수의 지시 대상이면서 듣는 사람인 [1]이 POSSESSOR가 되고 AVM(27c)로 표현되고 있는 엄마의 지시 대상인 번호표 [3]이 POSSESSED가 된다. 통사적 측면에서는 다시 핵어인 엄마가 보어인 너의를 취하여 완전한 명사구인 너의 엄마를 이루게 된다. 형태론적으로 3인칭인 첼수는 담화상에서 듣는 사람과 동일 지시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AVM들에 의해 표현된 소유관계의 POSSESSOR가 된다.

(27)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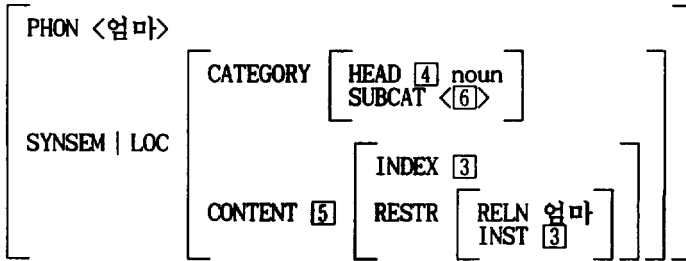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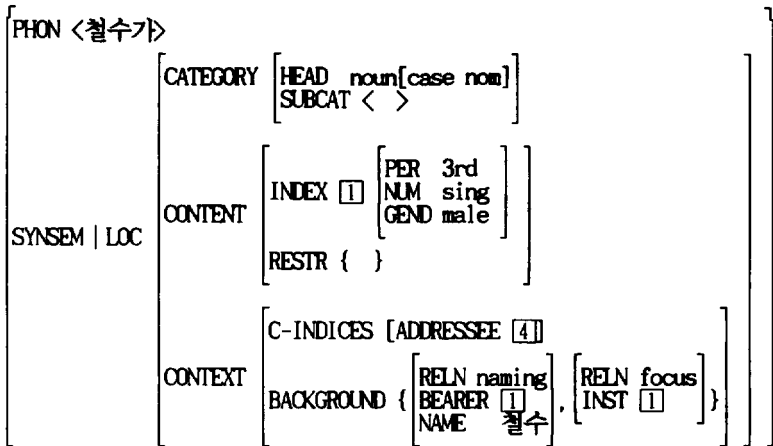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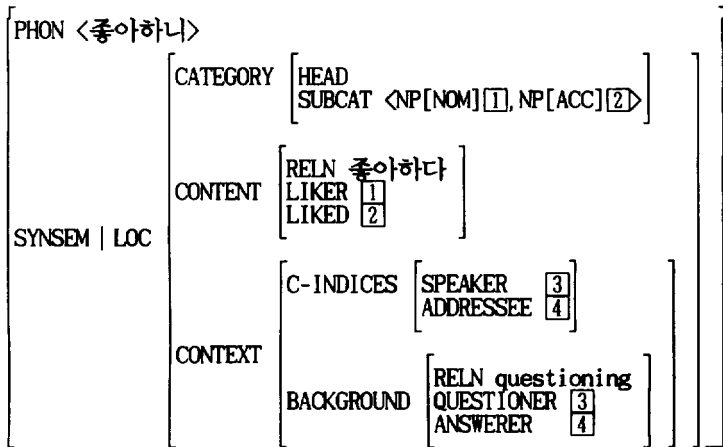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어에서 주제문 일치는 이상 (26), (27)의 AVMM에서 보았듯이 일관성있게 기술되었으므로 일치의 다른 예문들은 더 이상 분석하지 않겠다. 다만 2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25b)와 (25c)의 문장을 AVMM으로 좀더 기술해 보자.

(28a-b)는 철수가와 너가 동일 지시 대상이 아닌 (25b)와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8) a.



b.



(28a)는 문장 (25b)에서 철수를 표현한 것으로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AVM (26)과 같다. 첫 번째 차이점은 철수의 형태론적 정보인 [1]과 듣는 사람 (ADDRESSEE)을 나타내는 지시 대상인 [4]가 별도의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철수가 나타내는 지시 대상인 [1]이 주제가 아니라 초점 (focus)인 점이다. 이런 차이점은 좋아하니?를 표현하고 있는 AVM (28b)로까지 이어져서, 철수가와 너의가 제각기 다른 의미 관계의 구성원임을



시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로써 첩수가는 가다의 통사/의미적 관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상에서 듣는 사람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따라서 첩수가는 AVM (30)에서 가다라는 의미 관계의 AGENT이면서 동시에 듣는 사람이며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 5. 결론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은 단층위(monostratal) 이론으로서 표면구조만을 기술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운, 통사, 의미, 화용 등의 모든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기반적인 통합 문법이다. 한국어와 같은 담화의존적인 언어를 기술함에 있어서 통합 문법인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이 보다 일관성있고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

먼저 한국어는 담화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제문도 정보의 신/구에 따라서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토씨에 의해서 주제문과 초점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이 전해주는 전체 정보에 따라서 같은 토씨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제문과 초점문으로 나뉘었다. 이런 결과로 한국어에서는 주제문에서만 3인칭 의미 형태소를 가진 주제가 2인칭 형태소와 동일 지시하여 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영어나 불어 등 다른 언어에 없는 주제문 일치 현상을 기술해 줄 수 있는 문법이 종래에는 없었다. Pollard & Sag(1987,1994)이 토대를 구축하여 발전시킨 HPSG 이론만이 한국어의 주제문 일치 현상을 자연스럽게 기술해 주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HPSG의 구조 공유와 지표 그리고 통합의 개념들은 일치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다. 문제는 언어 자체가 모든 복합체 그 자체라고 볼 때 보다 일관성 있고 명료하게 HPSG가 어떻게 자질 체계를 세워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담화 상황의 미묘한 문제 등이 직접적으로 문법과 연관되는 경우 CONTEXT에서 이런 자질들을 제약하여 나타내 주는 문제가 체계적으로 선결될 때 한국어의 분석은 더욱 용이해지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박효명. 1995. "영어 WH-의문문 구조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학 3. 서울: 한국문화사.  
 이남근·안종기. 1994. "영어 통제구문의 HPSG 분석," 외국문화연구 17. 조

- 선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 이일호. 1993. 의미 현상으로서의 일치의 문제(정보기반 접근방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임경섭. 1993. 영어 수식어 구문에 관한 연구(HPSG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장석진. 1993. 화용과 문법. 서울: 탑출판사.
- 장석진. 1994. 통합문법론(담화와 활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resnan, J. and S. A. Mchombo. 1987. "Topic, Pronoun and Agreement in Chichewa," *Language*, 63-4.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Kathol, Andreas. 1994. "On Agreement in HPSG," ms.
- Manning, Christopher and Ivan Sag. 1995. "Dissociations between Argument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ms.
- Park, Byung-Soo. 1991. "The Semantic and Pragmatic Nature of Honorific Agreement in Korean: An Information-based Approach," *CSLI*, Kyung-Hee University & Stanford University.
- Pollard, C. and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1: Fundamentals. CSLI Lecture Notes Series No. 13. Stanford: CSLI Publications.
- Pollard, C. and I.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501-759  
 E-mail: nglee@ic21a.chosun.ac.kr.